

2011. 10. 3 제272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10. 3 제272호

문화·디자인

(토막기사) '해외 인사가 본 상하이' 행사 개최 (중국 상하이市)

(토막기사) 노후화된 도시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홍콩)

(토막기사) '2011 국제 디자인워크'와 '제1회 국제 디자인트리엔날레' 개최
(북경)

산업·경제

1. 관광 촉진을 위해 숙박시설 무장애화 사업 지원 (도쿄)

(토막기사)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에 중국어 케이블방송
서비스 제공 (미국 시카고市)

건강·복지

(토막기사) 국·공립 고교 학비 무료화에 이어 사립 고교 학비도 대폭 인하
(일본 오사카府)

(토막기사) 중학교 급식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 (일본 오사카府)

(토막기사) 식품안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중국 상하이市)

행정·재정

2.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 시행 (영국)

(토막기사)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市)

도시환경

3. 민간에 위탁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범칙금 부과 (영국 웨일즈)

4.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종별 규제정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 운영 (런던)

5.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공공건물 개·보수에 시공 전문가 및 재정 지원 (런던)

6. 낙엽을 녹색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혁신 공법 도입 (베를린)

(토막기사) '홍콩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등재 (홍콩)

도시교통

7. 공용 전기자동차 임대 서비스 '오토리브' 시행 (파리)

(토막기사) '친보행자 설계도시'로 선정 (미국 필라델피아市)

(토막기사) 버스 정시도착을 위해 뒷문 승차 허용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문화 · 디자인

‘해외 인사가 본 상하이’ 행사 개최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 해외동포처 주관으로 ‘해외동포 작가가 본 상하이’ 행사가 2011년 9월 11일 개최됨. 이 행사는 ‘해외 인사가 본 상하이’ 행사 중 하나로, 17개국 30여 명의 화교 작가가 참가함. 이들은 상하이에서도 다소 낙후된 지역이나 시내에서 떨어진 역사적인 거리, 문화센터, 문화콘텐츠 단지, 습지생태공원, 양로원, 유치원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장소를 주로 탐방함.
- 이번 행사는 市가 전통문화 보전과 현대문화 발전 및 융합을 중시하고 교육 및 위생, 복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받음. 한편 9월 21일에는 市 정보처와 외사처가 공동 주관한 ‘세계의 사진작가가 본 상하이’ 행사도 열림. 이 행사는 ‘세계의 화가가 본 상하이’, ‘해외동포 작가가 본 상하이’ 행사에 이어 열린 행사로 市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브라질 등 7개국에서 촉망받는 사진작가들이 참가함.
- 이번 행사에 참가한 사진작가들은 인민광장, 보행자거리, 황푸(黃浦)강, 와이탄(外灘),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푸둥(浦東) 루자주이, 신텐디(新天地), 엑스포공원 등 상하이의 명소를 방문함. 또한 상하이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하이테크단지, 농가도 방문함. 이 행사는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조만간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사진집으로 출간할 예정임.

(www.jfdaily.com/a/2326096.htm)

(http://news.xinhuanet.com/world/2011-09/12/c_122021850.htm)

(http://news.ifeng.com/gundong/detail_2011_09/11/9107881_0.shtml)

노후화된 도시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홍콩)

- 홍콩 도시재개발청(Urban Renewal Authority)은 2011년 8월 1일 노후화된 도시지역 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발표함. 도시재개발청이 도심재개발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중앙시장(Central Market) 건물 2층에 위치한 오아시스 갤러리(Central Oasis)에서 홍콩화가협회, 중서부 구의회,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 개최한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이번 지원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음.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연간 2500만 홍콩달러(약 38억 원)를 노후화된 도시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② 문화예술 지원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력하고 홍콩정부의 활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③ 도시재개발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
- ④ 도시재개발청의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공공공간과 보행공간을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함. 이를 위해 도시재개발청은 취엔완 지역에 위치한 시티워크(Citywalk) 쇼핑몰 내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타이 콕 초이에 위치한 도시재생자원 센터 내 다용도 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함.
- ⑤ 녹지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예술 및 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해 지역 특색과 예술적인 요소가 드러나도록 함.

(www.ura.org.hk/en/media/press-release/2011/20110801.aspx)

(www.centraloasis.org.hk/eng/home.aspx)

‘2011 국제 디자인위크’와 ‘제1회 국제 디자인트리엔날레’ 개최 (북경)

- ‘2011 북경 국제 디자인위크’와 ‘제1회 북경 국제 디자인트리엔날레’가 중국 교육부, 문화부, 문학예술계연합회, 북경市 공동 주최로 북경에서 열림. 디자인위크 및 디자인트리엔날레 행사에서는 종합 디자인 작품을 전시함.
- 2011 북경 국제 디자인위크 행사는 2011년 9월 26일~10월 3일 열렸으며, 세계적인 디자인 경향과 성과를 보여줌. ‘디자인 북경’을 주제로 디자인산업계 리더, 디자인 전문가, 세계 유명브랜드 디자이너 등 약 1000명이 참석함. 시민들은 세계 최정상급의 디자이너와 그들의 작품 10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시민과 관광객을 포함해 약 50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정됨.
- 제1회 북경 국제 디자인트리엔날레는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열리며 현대 디자인의 최고 수준과 최신 경향을 보여줌. 전시회는 국가 박물관에서 무료로 열리며, 40여 개 국가 500여 명의 일류 디자이너 작품 2000여 점이 전시됨. 그 외 ‘디자인으로의 여행’, ‘북경 디자인논단’ 등의 행사도 열림. 디자인으로의 여행은 북경 내 100여 곳의 창의적인 디자인 랜드마크, 브랜드, 기구가 전시됨. 디자인논단은 서울, 런던, 밀라노 등 5대 디자인위크 위원장과 북경 디자인위크 위원장이 세계적인 디자인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토론을 펼침.

(北京日報, 2011. 9. 22)

(auto.online.sh.cn/content/2011-09/23/content_4850416.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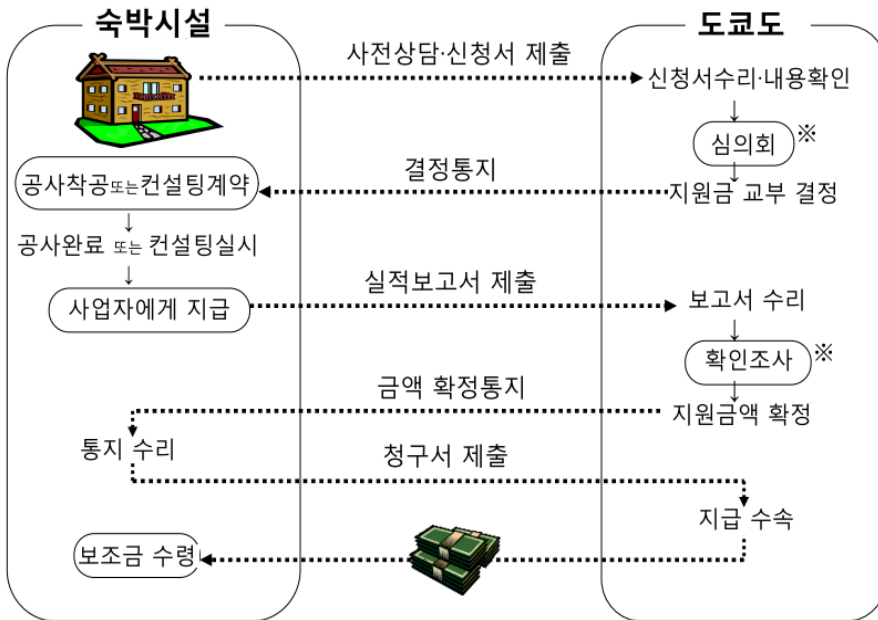
(news.xinmin.cn/rollnews/2011/09/23/12171521.html)

산업 · 경제

1. 관광 촉진을 위해 숙박시설 무장애화 사업 지원 (도쿄)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관광 촉진을 위한 관광객 수용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무장애화(Barrier Free) 사업의 정비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대상사업 경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시설 정비와 보수는 500만 엔(약 7700만 원), 다양한 종류의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객실로 정비하는 경우 700만 엔(약 1억 원), 컨설팅을 받을 경우 25만 엔(약 400만 원) 등 사업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예정임.



※표시는 컨설팅 사업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사업 지원 절차】

- 2011년 11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마감일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都是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 10월 11일 ‘숙박시설 무장애화 지원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임.

(www.kanko.metro.tokyo.jp/administration/h23/bf_201109.html)

(www.kanko.metro.tokyo.jp/administration/h23/documents/2011_01.pdf)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에 중국어 케이블방송 서비스 제공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관내 2만여 숙박시설에 중국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市는 중국 케이블방송 서비스 업체(CCTV4), 시카고지역 숙박협회, 시카고지역 케이블방송 서비스 제공업체(DirecTV)와 협력해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중국 케이블방송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최근 발표함.
- 이번 중국 케이블방송 서비스는 시카고를 방문하는 중국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市는 이를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市는 홍콩의 민간 국제항공회사인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 항공이 홍콩-시카고 직항로를 2011년 개설함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0년 10만 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11/september_2011/mayor_emanuel_announcesinnovativeprogramtobringchinesececabletelev.html)

건 강 · 복 지

국·공립 고교 학비 무료화에 이어 사립 고교 학비도 대폭 인하 (일본 오사카府)

- 일본 오사카府는 2010년도부터 국·공립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무료화한 데 이어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와의 학비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사립 고등학교의 학비를 대폭 낮추기로 함. 현재 오사카府에서는 사립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의 40%를 담당하고 있음.
- 사립학교 학생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50% 정도를 공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하위 70%의 학생에 대해서도 수업료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함. 직업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추가함. 이를 통해 공립과 사립 간의 경쟁조건을 맞추어 전체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중학교 졸업 후 진로 선택 단계에서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구를 대폭 늘림.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13만 5900엔(약 210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를 무료화하고,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22만 4100엔(약 34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담금액이 10만 엔(약 150만 원) 정도가 되도록 함. 주민세 소득공제금액 13만 5900엔은 연 수입 기준으로 610만 엔(약 94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며, 22만 4100엔은 610만~800만 엔(약 9400만~1억 2300만 원) 정도에 해당됨. 이 정책이 시행된 뒤 공립 중학교에서 사립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 수가 약 3000명 증가함.

(www.pref.osaka.jp/shigaku/shigakumushouka/index.html)

중학교 급식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 (일본 오사카府)

- 일본에서는 중학교 급식이 학교급식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나, 오사카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 결과 급식 비율이 전국

에서 가장 낮음. 이에 오사카府는 중학교 급식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함.

- 공립 중학교 급식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81.6%(2009년 5월 현재)인 데 반해 오사카府는 7.7%(2010년 말 현재)로 매우 낮음. 이에 오사카府는 중학교 급식 촉진 사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246억 엔(약 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 사업 완료 후에는 ‘중학교 100% 급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고려하지 않음.

구분	공립 초등학교(%)	공립 중학교(%)
전국	98.7	81.6
오사카府	99.7	7.7

【전국과 오사카府의 공립학교 급식 비율 비교】

(www.pref.osaka.jp/hokentaiku/kyuusyoku/chugakukyusyoku.html)

식품안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중국 상하이市)

- 중국 상하이市 식품안전위원회는 최근에 일어난 ‘폐식용유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市는 최근 시민 청문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신고 포상제도의 대상범위를 확정함. ① 농산물에 금지약품 첨가, ② 식품에 비(非)식용물질 첨가, ③ 음식물쓰레기로 식품 생산, ④ 식품첨가제 초과 사용, ⑤ 식당의 폐식용유 사용 등이 주요 감시항목에 포함됨.
- 市는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실태조사 후 최소 500위안(약 9만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힘. 포상금의 규모는 위법행위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여할 경우 전체 피해액의 2~5%, 신고만 하고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의 1~2%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市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식·약품 안전지식 캠페인’을 시작함. 이 캠페인은 식·약품 안전 관련 공연과 최근 문제가 된 식용유, 식품첨가제, 약품, 건강식품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짐. 식품안전 지식 전문가팀이 저술한 ‘우리 먹거리, 더욱 안전하게’라는 핸드북도 시내 전역에서 배포함.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식·약품 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이 캠페인은 11월 말까지 진행됨.

(news.online.sh.cn/news/gb/content/2011-09/25/content_4852014.htm)

(www.shfda.gov.cn/gb/node2/node3/node253/node270/node2765/userobjecttai29189.html)

(news.sina.com.cn/c/2011-09-25/044323212609.shtml)

행정 · 재정

2.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 시행 (영국)

- 영국에서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은 2010년 집권한 보수당·자유당 연합정부의 정책기조 ‘Big Society’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과정에서 비롯됨. 연합정부는 ‘자유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함. 특히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와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 현안을 지역의 커뮤니티가 해결하도록 하는 ‘Big Society’ 건설을 국정기조로 삼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대대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The Localism Bill’ 법령 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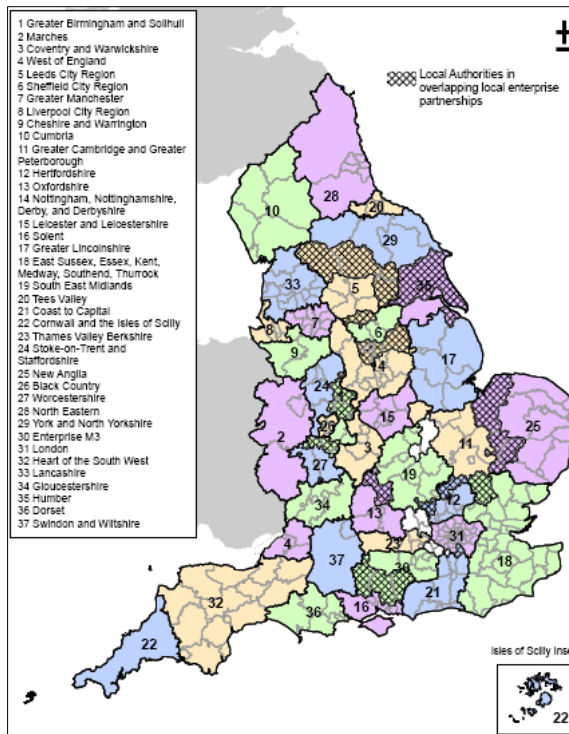
-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은 실질적인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Local Democracy)를 통한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 사회 안정, 시민 참여, 소

외계층의 사회 용화를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다음의 5가지 전략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에 지방정부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지난 노동당 정부에서는 주거지 조성 및 개발 시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주택 개발과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적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①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정부 재량으로 비즈니스세금을 할인해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지방정부가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함: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관료적인 통제로부터 지방정부를 자유롭게 함. 이를 통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의 서비스와 세금(Council Tax)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 정부는 ①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 높은 Council Tax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Council Tax의 부담을 대폭 경감, ③ 비효율적인 감사체계 정비, ④ 강제성을 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중단 등을 추진함.
- 지역주민이 지방정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직선으로 시장을 뽑을 수 있는 기회 확대, ② 투표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③ 경찰 대표도 직선을 통해 뽑아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주민에

게 부여, ⑤ 지방정부에 기금 모금 및 지원에 대한 자유재량 부여, ⑥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지역의 재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주민에게 부여, ② 재원 사용 결정권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부여, ③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재원을 채권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추진함.



【잉글랜드 내 37개 '지역 엔터프라이즈 파트너십' 설립 현황】

- 이전 노동당 정부가 설립한 광역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 폐지: 광역지역정부가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광역지역정부를 없애고 광역지역정부가 가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이를 위해 현 정부는 ① 광역지역정부의 도시계획 권한과 주택개발 권한 폐지, ② 중앙정부의 광역지역 파견 사무소인 ‘Government Office for London’을 폐지하고 권한을 런던 내의 지방자치단체(Boroughs)와 Greater London Authority에 이양, ③ 광역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이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를 설립해 광역지역개발청의 기능 수행, ④ 광역 차원으로 분산된 방재계획(Fire Plan) 폐지 등을 추진함.

(www.communities.gov.uk/localgovernment/local/localenterprisepartnerships/)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市)

- 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Newark)市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Fellows Internship Program을 시행함. 이는 학부생에게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무급으로 市 행정국, 재정국, 수자원 및 전기국, 지방법원, 도시계획국, 공원녹지국, 사회복지국에 배정되어 일을 하는 프로그램임.
- 학생들은 1주일에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음. 학생에 대한 평가는 대학의 해당 과목 지도교수와 市 담당 공무원이 수행함.

(www.cityofnewarkde.us/index.aspx?NID=664)

도 시 환 경

3. 민간에 위탁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및 범칙금 부과 (영국 웨일즈)

- 영국 웨일즈 북부에 있는 블레이뉴 겐트(Blaenau Gwent)시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가 늘어나자 민간업체에 위탁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제도’를 시범시행하기로 함. 시는 주차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차요원처럼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애완동물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감시요원을 거리에 배치하기로 함.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은 민간 경호회사인 XFOR社가 고용, 관리함. 감시요원은 앞으로 6개월간 시내를 순찰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에게 75파운드(약 1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임. 국민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증거사진은 감시요원 제복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함.
 - XFOR社는 영국 내 4개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요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월 평균 20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시는 시 청사 내에 감시요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지역 주민 중에서 감시요원을 채용할 것을 이 업체에 요구함.
 - 현재 웨일즈 전역에서 길거리 쓰레기 처리에 쓰는 비용은 연간 4000만 파운드(약 736억 원)에 달함. 그동안 예산 부족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를 적발할 감시요원 2명은 市가 직접 고용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임. 또한 애완동물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이외에도 포장된 음식물을 파는 햄버거 체인이나 케밥 판매점을 대상으로 생산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포장 음식물 세금’을 부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www.bbc.co.uk/news/uk-wales-south-east-wales-15031701)

(www.bbc.co.uk/news/uk-wales-13676204)

4.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종별 규제정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 운영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배출지역 제도’(Low Emission Zone)를 대형 화물차량, 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기에 앞서 차종·차량 등록번호별로 규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함.
- 확대·강화된 규제기준은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됨. 차주는 차량 검사와 배출저감장치 장착을 제도 시행 전까지 완료해야 함. 차량별 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도 시행 전에 점검·수리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시행 이후에는 하루 단위로 벌금을 물어야 함. 이에 따라 런던市와 교통공사는 9월 말부터 12월까지 규제 확대 적용과 기준 강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함.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적용 차량에 대한 규제정보 안내 홈페이지】

-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연결된 저배출지역 제도 안내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종별로 색깔을 달리해 규제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냉장 등 특수기능 화물차, 일반 화물차, 일반 트럭, 대형 버스, 중대형 화물 밴, 소형 화물 밴, 중형 버스 등 총 11개 차종을 클릭하면 규제기준, 시행일자 등을 볼 수 있음. 차량 등록번호로도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있음.
- 저배출지역 제도 확대 적용으로 15만 대 정도가 추가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됨. 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혼잡통행료와는 달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엄격하게 적용됨.

Low Emission Zone

[About the LEZ](#) |
 [Which vehicles are affected?](#) |
 [What are my options?](#) |
 [Do I need to register?](#) |
 [Penalty Charges](#) |
 [Make a payment](#) |
 [Information for manufacturers and fitters](#)

Which vehicles are affected?

From 3 January 2012, larger vans and minibuses will need to meet the Euro 3 emissions standard for particulate matter and lorries, buses and coaches will need to meet Euro IV.



[Lorries, buses, coaches & heavy specialist vehicles](#) |
 [Larger vans, minibuses & specialist diesel vehicles](#) |
 [Check if your vehicle is affected](#) |
 [Exemptions and discounts](#)

Check your vehicle

Use our simple tools to check whether your vehicle meets LEZ emissions standards

Related links

- [VOSA information](#)
- [DVLA](#)
- [Sign in](#)

See also

- [Freight](#)
- [LEZ Publications](#)

【저배출제도 적용차량 검색화면】

- 이미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 화물차, 버스 및 관광버스의 경우 규제기준이 '미세먼지 유로기준 4'로 강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200파운드(약 36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함.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차종은 '유로기준 3'을 만족시켜야 함.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0파운드(약 1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1095.aspx)

(www.tfl.gov.uk/roadusers/lez/default.aspx)

5.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공공건물 개·보수에 시공 전문가 및 재정 지원 (런던)

- 런던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 병원과 같은 공공건물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시공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고 공사비용도 지원할 계획임.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재정 지원 규모는 1억 파운드(약 1840억 원)에 이룸. 런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는 공공건물에서 발생함.
 - 공공건물 개·보수는 친환경적인 건물로 만드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지원금은 공공건물의 조명시스템·공조시스템·보일러 교체, 스마트미터기·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사용될 예정임. 이를 시공할 팀을 시 차원에서 구성해 개·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임.
 - 공공건물 개·보수를 위한 시공 전문가와 재정 지원은 런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건물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임. 동시에 녹색경제 활성화와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기도 함.
 - 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런던 그린펀드’(London Green Fund)를 통해 5000만 파운드(약 920억 원)를 우선 조성하였고 이를 ‘런던 에너지효율성 펀드’(London Energy Efficiency Fund)로 전환해 사용할 예정임.
 - 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개·보수 프로그램’(Re:Fit Programme)을 통해 시 산하 42개 공공건물을 개·보수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료를 매년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 절감하고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E2%80%99s-%C2%A3100m-boost-green-london%E2%80%99s-public-buildings)

6. 낙엽을 녹색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혁신 공법 도입 (베를린)

○ 베를린市는 새로운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세우고 늦어도 2016년부터는 모든 바이오 쓰레기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활용할 예정임. 베를린의 낙엽과 짙은 잔디는 각 자치구의 녹지청과 재활용회사를 통해 매년 약 14만 메가그램(Mg)이 수거됨. 이러한 바이오 쓰레기는 퇴비공장을 통해서만 재활용되고 소각은 하지 않음.

- 그런데 이러한 재활용 방식에 문제가 있음. 바이오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에너지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퇴비화 과정과 생산된 퇴비에서 기후보호에 악영향을 주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가 다량 배출됨. 이들 가스의 유해성을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아산화질소는 298배 더 유해함. 낙엽이나 짙은 잔디를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후부담을 가중함.

· 이에 따라 市는 자치구의 녹지청, 재활용회사와 함께 혁신적인 바이오 쓰레기 처리공법인 ‘열수가압 탄화’(Hydro thermal Carbonization) 방식을 도입하기로 함. 열수가압 탄화 공법은 낙엽과 잔디 등을 물순환 방식으로 세척한 후 높은 압력에서 가열해 수분을 제거하고 고온 가루입자 상태로 만드는 방식임. 이 입자는 탄소중립적인 바이오석탄으로 가공되어 녹색에너지원으로 전환됨.

-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재활용방식을 도입할 경우 베를린에서 매년 23만 메가그램의 유해가스가 줄어드는 기후보호 효과가 창출됨. 처리시스템 설치비용도 다른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임. 예를 들어 태양열 집열판 설치비용과 비교하면 거의 20배나 저렴함.



【베를린市の 혁신적인 낙엽 재활용 공법】

(www.berlin.de/sen/guv/presse/archiv/20110923.1105.359727.html)

(www.berlin.de/sen/umwelt/abfallwirtschaft/downloads/biomasse/handlungsleitfaden_maehgut.pdf)

‘홍콩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등재 (홍콩)

- 홍콩에 있는 지질공원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 Network)에 등재됨.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는

- 2011년 9월 17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제10회 유럽 지질공원 총회에서 ‘홍콩 국가 지질공원’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한다고 밝힘. 이를 계기로 공원 이름도 ‘차이나 홍콩 세계 지질공원’(Hong Kong Global Geopark of China)으로 바뀜. 세계 각국은 국가 지질공원 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고,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는 27개국에 있는 87개 지질공원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함.
- 홍콩의 지질공원은 지질학적 특성 외에도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음.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등재요건에도 지질공원이 지구과학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지역을 보호하거나 교육 및 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 되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노력과 이에 따른 혜택도 중요하게 평가받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가 2010년 10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울릉도는 현재 인증 신청서를 작성 중임.

(www.info.gov.hk/gia/general/201109/18/p201109180123.htm)

도 시 교 통

7. 공용 전기자동차 임대 서비스 ‘오토리브’ 시행 (파리)

- ‘벨리브’(Velib)가 파리의 공용 자전거 임대 서비스라고 한다면 ‘오토리브’(Autolib)는 1년 365일 연중무휴 공용 자동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서비스임. 임대자동차는 100% 전기자동차로 4인용 좌석, 라디오, GPS가 있음. 도시에서 총 250km 이상을 달릴 수 있으며,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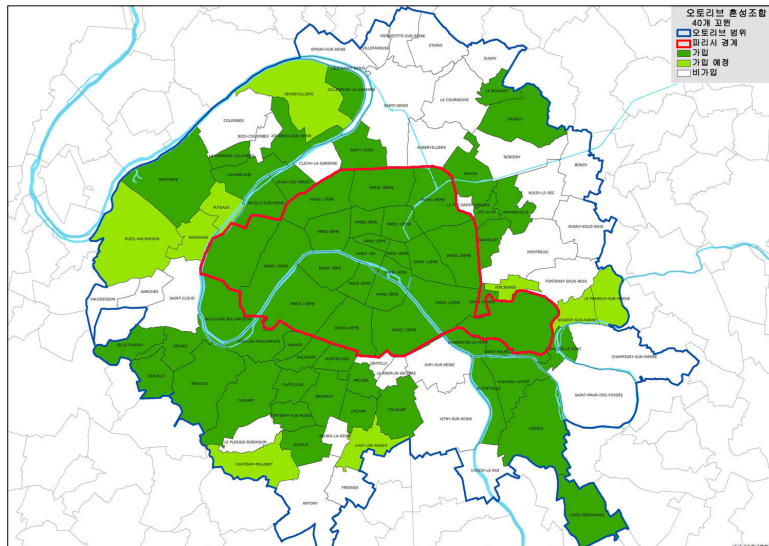


【임대 전기자동차인 '블루 카'】

- 한 조사에 따르면 파리 시민의 16%가 자가용을 한 달에 한 번 이하 꼴로 사용하고, 자가용 유지비는 평균 5000유로(약 800만 원) 정도 되며,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림. 시민의 26%는 높은 차량 유지비, 주차난, 낮은 사용빈도 때문에 자가용을 파는 것을 고려함.
 - 또한 시민 5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오토리브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5%가 일주일에 몇 차례, 13%가 한 달에 몇 차례, 28%가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자동차 임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함. 오토리브 센터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동차를 빌리거나 주차공간을 예약할 수 있음. 한 센터에서 자동차를 선택한 뒤 다른 센터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도 있음. 주차할 때는 미리 예약해 놓은 자리에 주차하거나 비어 있는 자리에 주차하면 됨. 3종류의 정기 이용권도 발급하고 있음.
 - ① 연간 정기 이용권: 기본요금 월간 12유로(약 1만 9000원) + 최초 30분 임대료 5유로(약 8000원), 두 번째 30분 4유로(약 6400원), 세 번째 30분 이상 6유로(약 9600원)

- ② 주간 정기 이용권: 기본요금 주간 15유로(약 2만 4000원) + 최초 30분 임대료 7유로(약 1만 1000원), 두 번째 30분 6유로(약 9600원), 세 번째 30분 이상 8유로(약 1만 3000원)
 - ③ 일일 정기 이용권: 기본요금 주간 10유로(약 1만 6000원) + 최초 30분 임대료 7유로(약 1만 1000원), 두 번째 30분 6유로(약 9600원), 세 번째 30분 이상 8유로(약 1만 3000원). 회원 가족이 이용할 경우 가족할인 10%가 추가됨.
- 오토리브 운영은 교통 담당 부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혼성조합에서 담당함. 이 조합에서는 30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비치하고 1000개소 이상의 자동차 임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파리에선 자동차를 임대할 수 있는 700개의 임대시설이 설치되는데, 500개소는 차량을 4~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옥외 시설이고, 200개소는 6~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실내 시설임. 독일의 울름(Ulm)시가 전기자동차 임대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규모만 본다면 파리시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음.



【파리시와 일 드 프랑스의 오토리브 이용 범위】

(www.paris.fr/pratique/deplacements-voirie/voitures-deux-roues-motorises/autolib-c-est-pour-bientot/rub_381_stand_80594_port_1199)

(www.paris.fr/accueil/accueil-paris-fr/autolib-les-premieres-stations/rub_1_actu_94468_port_24329)

‘친보행자 설계도시’로 선정 (미국 필라델피아市)

– 미국 필라델피아市는 미국 보행자협회(Walk Friendly Communities)에서 선정하는 ‘친보행자 설계도시’에 뽑힘. 이 협회는 2011년 9월 22일 필라델피아, 알렉산드리아, 산타모니카를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친보행자 설계도시 은상 수상도시로 선정함. 금상 수상도시는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샌프란시스코임.

- 선정 이유로는 도시 관광의 1/4 정도가 도보로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시내 중심가에서도 차량 통행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대도시라는 점을 들.
- 市는 2010년 가을에 보행자 중심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시내 535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개편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임. 이 결과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함.

(cityofphiladelphia.wordpress.com/2011/09/22/philadelphia-awarded-silver-walk-friendly-communities-designation/)

(www.walkfriendly.org/)

버스 정시도착을 위해 뒷문 승차 허용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의 대중버스인 ‘Muni’는 정시도착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객이 뒷문을 통해서도 승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市는 승객 수가 많고, 정류장 간격이 짧으며, 속도가 느려 Muni의 양문 사용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계속해왔음.

- 뒷문 승차를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무임승차로, 市는 무임승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임. 뒷문 승차를 하기 위해서는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약 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市는 무임승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승차권 소지 여부를 검사하는 직원도 확충할 예정임.

(articles.sfgate.com/2011-09-07/bay-area/30121631_1_fare-muni-metro-line-and-board)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11/08/29/BATS1KSFLA.DTL&feed=rss.bayarea)